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 스님 어디로 가십니까?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충언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너의 어머니는 추하고 못생겼다.”

問 如何是忠言 師云 你娘醜陋

백 마디의 설명보다 직접 체험한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선사들은 학승이 느끼고 체험하게 하는 교육을 즐겨 사용한다. 조주 선사가 그대의 어머니를 면전에서 욕했다면 그대의 심리는 어떠하겠는가? 중생은 충언에 분노가 일어나고, 깨달은 자는 충언에 답답하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부처도 초월하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은 박장대소했다.

問 如何是佛向上事 師便撫掌大笑

계율에 출가 수행자는 대저 큰소리로 웃고 떠들면 안 된다고 되어있다. 이것은 여러 사람이 사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좌선이나 경을 읽고 있는데 나 혼자 떠들면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출가 수행자의 계율은 그것을 범하면 갑자기 하늘이 내려왔을 정도의 큰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

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남을 배려하고 자비심을 내게 하는 차원에서 정해진 것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계율은 상당히 융통적이다. 역사적인 인물을 볼 때 원효 스님, 진묵 스님, 경허 스님 등은 다 술을 좋아했는데, 술을 마시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주로 자신에게 더 피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적당한 정도는 스님이라 해도 마셨던 것이다.

그렇다 해도 이런 행위는 일단 부처님의 계율을 벗어난 행위이다. 당연히 문제가 될법한데도 고승들이 한결 같이 문제 삼지 않는 이유는 부처님의 가르침 마지막 단계를 부처도 넘고 조사로 넘어가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대저 계율이라는 것은 유치원에 갇힌 자들에게 질서를 위해 설정해놓은 것이지, 부처도 뛰어넘고 조사도 뛰어넘은 향상인(向上人)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다. 이런 향상인들이 많을수록 이 땅이 어지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참의적인 불교가 되는 것이며, 태평한 세계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향상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일까? 향상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처님 계율도 무시하고 조사도 밟아버리고 우주의 주인이 되어 하하하 박장대소를 할 수 있는 기가 있는 자이다.

학승이 물었다.  
“하나의 등불이 백천 개의 등불을 불붙인다고 합니다만 그 하나의 등불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러자, 조주 스님은 한쪽 신발을 발로 툭 차버렸다. 그

리고 또 말했다.  
“선장(禪匠)이라면 그렇게 묻지 않아.”

問 一燈燃百千燈 一燈未審從什麼處發 師便踢出一隻履 又云 作家即不與麼問

노대가의 답변이 뒤로 갈수록 지극한 선기(禪氣)를 담고 있다. 여기서 하나의 등불은 한 사람의 붓다이다. 한 붓다가 나오는 것은 한 밤중에 햇빛을 가지고 나타난 것과 같다. 중생들은 암흑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불빛을 보면 모두 다가가 불을 붙여간다. 그리하여 암흑의 세상이 환한 대낮과 같이 밝아지게 된다.

그런데 수많은 등불을 붙이는 그 하나의 등불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붓다가 나와 세상을 밝힌다면 그 붓다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만 가지가 나온 근원을 묻는 것이다.

조주 선사는 이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었다. 바로 신발 한 짝을 발로 툭 찬 것이다. 남자들은 즉시 신발을 발로 툭 차보라. 거기에 수많은 등불을 밝히는 최초의 등불이 있으니 학인들은 그때 즉시 깨달으라.

또 본분을 아는 선문의 작가(作家) 禪匠)라면 그렇게 묻지 않는다 했으니, 선(禪)을 아는 남자는 어떻게 물었는가? 본 남자라면, “스님은 결국 어디로 가십니까?”하고 묻고, 선사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바로 연화실을 나와 버릴 것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㉔



#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에도 더러워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숫타니파타(經集))

일부러 지나쳐 보고자 했다. 멀리 달아나고 싶다. 그런데 자꾸만 되돌아 보게 된다. 몇 번을 돌아보다가, 할 수 없이 행복하고 만다. 다시 돌아와서, 이 말씀 앞에 발을 멈추었다. 속으로, 말없이, 몇 번이고, 외고 또 외운다.

누가 이처럼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을까? “현대시는 메타포(metaphor, 은유)다.” 어느 시자법 교재의 지침이다. 그럴진대는 “---과 같이, ---과 같이”라고 하는 직유(simile, 直喻)는 좀 시대착오적인, 시인으로서의 피해아 할 것만 같은 수사법으로 생각되어 오지 않았던가. 그러나, 보라. 여기 시인 붓다의 절창(絶唱)을! 더 이상 아름다운 비유를 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어느 시에서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라는 절구(絶句)를 토해낸 미당 서정주(1915~2000) 시인 정도가 버금간다 할 것인가. 그 역시 이 부처님의 비유로부터 변용(變容)한 것이 아닐까 싶다.

이 글의 제목으로 쓰기에 너무 길어서 앞뒤를 몽땅 잘랐는데, 사실 직유는 세차레나 반복되고 있다. “큰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라는 구절이 제일 먼저 나온다. 그런 뒤에 제목에서 인용한 구절이 이어진다. “큰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 그리고 진흙에도 더러워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라고 말이다.

사자, 바람, 그리고 연꽃의 이미지를 통하여 부처님께서는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일까? “남에게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남을 끌고 가는 사람”이 더 담고 계신다. 지금 내 눈앞에는 어디에도 걸림없이, 광야를 표표(飄飄)히 방랑하는 나그네의 모습이 아른거린다. 일찍이 “절친한 관계로부터 두려움이 생기는”는 줄 알아서, 무리 짓기를 저어하고 “홀로 걸어가는 유랑자(遊行者)! 그러면서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수행자” 말이다.

누군가에 의해서 제기되는, 어떤 목적을 갖고서 외쳐지는 구호나 “편협된 주장들을 이미 간파하여 / 그 어느 편에도 치우치려 하지 않는 사람” 역시 바람(‘바람’의 이미지가 여기서처럼 긍정적으로 살아나는 경우를 일찍이 본 적이 있던가?)과 같은 사람이고, 연꽃과 같은

사람이다. 편협된 주장을 내세우고, 하나의 편협한 주장들에 모여들어서 그것을 마치 진리인 양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단. 그것을 우리는 일러서 당(黨)이라 말한다. 승가는 결코 당이 아니며, 수행자 역시 당인(黨人)일 수 없으리라.

편협한 주장을 매개로 해서, 절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뭉쳐서 편당(偏黨 / 片黨)을 형성할 때, 그런 편당이 많을수록 세상 안에서든 승가 안에서든 평화는 멀어져 가는 것 아닐까. 그들은 저마다 천하의 일통(一統)을 노래하면서, 그들의 방책(方策)만이 민(民)을 살피우는 일이라 말하리라. 그러나 여기 “그러한



그림 · 박구원

편협된 주장들을 이미 간파하여”, 그 어느 곳에도 발을 들여놓지 않는 사람이 있다. 오직 그들 당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를 비난할 것이다.

그러나 “칭찬에도 비난에도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 큰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 그물에 걸리지 않는 연꽃과 같이”는 사람은 한 바탕 웃고 말리라. 저 피비린내는 나는 강호(江湖)의 무림(武林)을 비롯하여 (笑傲)할 수 있으리라.

천하일통(天下一統)의 미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표표히 떠돌면서 자비를 베푸는 수행자, 그가 ‘진정한 성자’이다. 지금 우리 역시 그런 어른을 대망(待望)하고 있다. 타는 목마름으로.

(“ \*로 표시된 모든 인용구는 석지현 옮김, 《숫타니파타》, 56-57쪽으로부터 인용한 것임.)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주성원의  
기초 교리 <15>

## 팔정도-⑦ 정념(正念)

팔정도의 일곱 번째 덕목 정념(正念)은 흔히 ‘바른 의식’으로 번역된다. 그러다보니 정념은 두 번째 항목 정사유(正思惟)와 다소 혼동되곤 한다. 정사유가 부처님이 설한 사성제 등의 진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라면, 정념은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주의집중’하는 것이다. 즉 정사유가 생각에 의한 판단작용과 관련이 있다면 정념은 주의를 기울이는 작용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핀다는 뜻이다. 찰나의 짧은 시간에도 천변만화(千變萬化)하는 마음을 살핀다는 것은 불법(佛法)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염두에 둔다는 것은 잊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정념에는 ‘주의와 기억’이 함께 작용하는 덕목이 된다.

정념의 산스크리트어는 삼약-스미띠(samyak-smṛti)로 삼약이 정(正)이고 스미띠가 염(念)을 뜻한다. 스미띠는 무언가를 기억하거나, 기억한 것을 다시 상기 시키는 등의 기억작용 전반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 스미띠가 염(念)으로 한역된 것인데, 염(念)은 지금[今]과 마음[心]이 합해져서 만

들어진 형성자로, 이 순간, 바로 이때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한자이다. 이러한 면에서 정념은 산스크리트어 본래의 의미를 잘 살린 한역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적인 의미에서 정념은 무상(無常)·고(苦)·무아(無我) 등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정념에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경험한 것을 기억하는 것과 둘째, 기억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내고 재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념처(四念處)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념처는 몸[身], 감수작용[受], 마음[心], 마음의 대상[法] 등의 네 가지를 가리키는 말로, 이 네 가지가 무상·고·무아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즉 육체[身]와 정신[受·心]과 마음의 대상[法]에 대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바른 견해를 계속해서 지니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이것을 네 가지 관상법(觀想法)이라고도 하는데, (1) 이 몸은 부정한 것이며, (2) 감수작용은 고통을 수반하고, (3) 마음은 무상하며, (4) 법[대상]은 실체가 없는 무아임을 통찰하는 수행법이다. 이 네 가지를 잊지 않고 항상 염(念)하는 것이 정념인 것이다. 초기경전에서 사념처는 일승도(一乘道)라고 하여, 수행의

출발점에서 최고의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사념처관(四念處觀)의 수행만으로 충분하다고 기록돼 있을 만큼 중요한 불교수행법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정념을 출가자들의 엄격한 수행방법이 아닌 세간적인 시각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세속에서 살아가는 중생에게 있어서 정념은 항상 주의를 태만하지 않고, 깜빡 잊거나 희미하게 기억하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큰 교통사고나 화재 등의 위험한 사건이 터지는 것은 작은 부주의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 부주의는 때로 아주 미미한 것일 수 있고, 큰 죄악으로 볼 수도 없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작은 부주의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로 연결되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큰 재산피해를 보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살인이나 강도 등의 흉악범죄보다도 수십, 수백 배의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정념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알 수 있다.

이처럼 세간적인 삶과 출세간적인 삶 두 가지 면에서 볼 때 정념은 한결같이 마음을 주시하는 것이다. 이는 선불교에서 화두를 간(看)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깨어있는 마음과 평상심을 늘 유지함으로써 얻어지는 바른 의식작용이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前 前지기자

# ‘무상·고·무아’ 늘 통찰하는 바른의식 작용

#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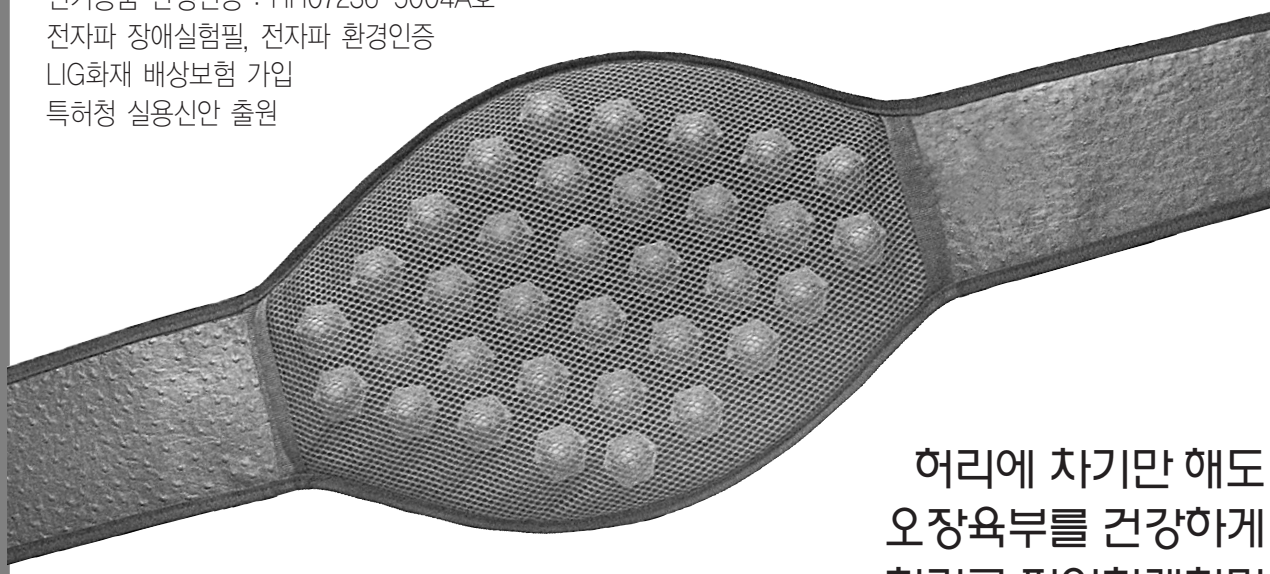
##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아름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복대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속품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품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속품(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서냉
- \*오심건,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택형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심건조기,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